

예 배	일 시	장 소
주일예배	주일 오후 1시 50분	예배당
청년 큐티 나눔	금요일 오후 9시	Zoom
한민 말씀방	매일	카카오톡

주일 예배 봉사위원

	07. 10	07. 17	07. 24
대 표 기 도	황희순 집사	노지민 성도	김복자 권사
성 경 봉 독	황희순 집사	노지민 성도	김복자 권사

환영 :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.

예배 안내 : YouTube에서 „브레멘 한민교회“ 검색하세요.

교회소식

7월 축복인사 - 물 댄 동산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세요.(성도 간에)
나는 물 댄 동산의 주인공이야!(자신에게)

1. 맥추감사주일 - 한국교회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.
2. 기도시간 - 오후 1시 30분부터 기도시간이 시작됩니다.
3. 한민 말씀 방 - 방학과 휴가 중에도 '말씀방'은 매일 열립니다.
4. 청년 큐티 나눔 - 7월부터 방학을 시작합니다.
5. 방학 중 고국을 방문하는 청년들은 목사나 청년 회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교우동정

생일	이종길 성도(9일)

지난주통계

주일헌금	
십 일 조	
감사헌금	
합계(Euro)	

브레멘 한민교회

Bremen Han-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

“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(히10:25)”



믿음의 부요를 보이고
소망의 기쁨을 나누며
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

담임목사 이 상 호(Sang Ho Rhee)

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

교회 : Anna-Stiegler-Str. 124 28277 Bremen
전차 (Tram) 4번 / 버스 (Bus) 22, 29, 51, 52번
정거장(H) : Kattenturm-Mitte



<http://www.brehanmin.de>

주일 예배 Gottesdienst

-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
- 송 영 Chor 반주자
-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
-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(새번역) 다같이
- 찬 송 Gemeindelied 359장 다같이
-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
- 성경봉독 Predigttext에 3 : 1 - 6(구p752).....정용현 안수집사
(Esther 3:1-6)
- 교회소식 Information & Begrüßung(새 가족 환영).....이상호 목사
-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이상호 목사
- 설 교 Predigt타협이나, 소신이나..... 이상호 목사
- *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
- *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
- * 송 영 Chor 반주자

***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.**

†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.

† 다음 주일 기도 담당 : 황희순 집사

† 기도제목

1.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
2.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
3. 브레멘의 각 대학에 입학한 한국유학생들이 한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
4.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
5. 김선택, 장보경(헝가리)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

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은 없다

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.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.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앎으로 강해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. 하나님은 내가 그 상황을 통과하길, 넘어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.

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 나를 훈련하십니다. “내가 저 사람만 아니면 화를 내지 않을 텐데”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‘그 사람을 네 천사로 여겨라. 그로 인해 네 성품의 어느 부분에 훈련이 필요한 지를 알게 된다. 내가 나를 앎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통해 내 성품이 네 속에 나타나기를 바란다’고 말씀하십니다. 때로 우리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얼마나 불이 강한지 곧 녹아 버릴 것처럼 느껴집니다. 훈련 받기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으로 생깁니다. 그냥 화를 내는 것으로 일을 처리해 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.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. “내가 너를 연단하고자 한다. 먼저 나를 알아라. 나를 앎으로 강해져라”고 말씀하십니다.

하나님을 알 때 강해집니다.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놀랍습니다.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. 그런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.

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/ 홍성건 목사
(NCMN-Nations Changer Movement Network- 대표)

* 우리 인생의 희곡을 쓰는 작가, 막과 무대를 바꾸는 감독은 하나님이시다
- A. T. Pierson 선교사(현 평택대학교 전신 피어선 성경기념 학원 설립자) -